

第63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9月27日(土) 午前11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現地踏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案件

1. 現地踏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委員長 提案) 1面

(11時05分 開議)

1. 現地踏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委員長 提案)

○委員長 鄭昌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 제62회 임시회기중 돈암 제1주택 재개발구역과 중암1동 하수관 공사구간 현장 답사한 결과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구행정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洛吉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현장답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鄭昌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수정이나 첨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어요」하는 이 있음)

김순권위원님 뭐 첨부하실 것이나, 수정이나 이거 그쪽 지역 것 같은데요.

○金順權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鄭昌萬 이연경위원님.

○李鍊炯委員 중암로 하수관 구경을 우리가 1,200mm짜리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1,100mm짜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양쪽 공히 1,200mm이상으로 시공토록 요망을 했는데 이쪽에 보니까 1,100mm짜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金鈴基委員 그것은 흥관 아니에요?

○李鍊炯委員 하수관,

○金鈴基委員 그것은 박스가 아니고 흥관인데,

○李鍊炯委員 그런데 거기도 흥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다시 박스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 보면 하수관을 두 개 할 도로 양쪽 공히 1,200mm이상으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요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100mm짜리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1,200mm짜리로 해 달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100자리로 하도록 그냥 놔 둘 것인지,

○委員長 鄭昌萬 그래 우리가 지금 하수관에다 1,200mm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 아니니까? 시정해 달라고.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이,

○李鍊炯委員 1,100mm짜리를 갖다 놓고 있어요, 전부다.

○委員長 鄭昌萬 지금 그러면 물어 봤습니

까?

○李鍊炯委員 묻지는 않고,

○委員長 鄭昌萬 아직 안 물어 났다고요.

○羅光洙委員 지금 어느 쪽으로 묻고 있어요, 그것들.

○李鍊炯委員 2동쪽.

○羅光洙委員 사대 부고쪽으로.

○李鍊炯委員 네.

○羅光洙委員 괜찮겠어요? 경사도 문제가.

○李鍊炯委員 경사도도 지금 그대로 전에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감리단장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쪽 제기동 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면 훨씬 더 경사도가 낮아서 물이 잘 빠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대부고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柳興先委員 그런데 거기 위치를 우리도 잘 알지만 지금 현재 1,100mm나 1,200mm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현재 사대부고 자리로 해서는 도저히 물길이 안 나요. 경사가 안 나오고. 제대로 할려면 현지답사 갔다 온 것처럼 물고를 제기천으로 빼야, 물길이 급속도로 고바위가 된 데가 잘 나가지 사대부고는 항상 차 있다고요.

○李鍊炯委員 그래서 거기 현장에를 한 번 위원님들이 가 보고 제기천 다리 있거든요. 그쪽으로 얼마 안 가면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거기하고 동대문쪽 하고 연락해서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어떠한 얘기를 했더니,

○委員長 鄭昌萬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 김영기위원님이 누가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제기천이나 이쪽으로 해서 넣으면 더 좋다.

○李鍊炯委員 자료 요청을 다시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건의를 한 번 했으면 하는데요.

○金鈴基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수 종말 연결 부분 정릉천과 종암로에서 빠지는 하수구 연결 부분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비가 와서 정릉길이 차면 그 물이 종암동에서 빠져 나간 물이 역수가 되기 때문에 이 종암동이 물바다를 이루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물

을 연결된 부분을 저 밑에 하단으로 빼줘야 그리 빼줘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수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지금은 비가와도 건조기에는 그게 그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비가 와서 정릉천에 물이 찼다 하면 이게 역수가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잡았던 것이고 그때 하수관에서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서 밑에서 끌어서라도 과연 이 물이 제대로 하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법으로써 중대한 일을 자기네들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맞추겠다고 해서 그쪽에 하고 왔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진행 과정이 아직은 안 했으니까 그 이후에 잘못하면 그쪽에서 왜 원래 우리 설계변경해서라도 하단으로 끌어서 이것을 방지책을 구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고 그때가서 일이지, 지금은 아직은 한다고 했는데 해 보지도 않고서 무슨 얘기를 들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李鍊炯委員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委員長 鄭昌萬 한 분씩 한 분씩 얘기해주세요.

○柳興先委員 그때 우리가 현지 답사했을 때 사대부고로 한다면 방금 김영기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물 밑이 전부 구비가 안 됐어요. 구비가 안 돼서 비 조금 오다 보면 역수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개천이 잘 무너지고 해서 물을 뺐습니다. 우리 김영기 위원님 동에서 안 빠지고. 그럼 그 구비를 어디에다 해야 하나면 지금 현재 고대 앞에 지금 자동차 수리하는데 있죠. 자동차 무허가업소 쪽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다리가 있어요. 제기다리 그 다리로 빼줘야 구비가 편사 구비가 되어 가지고 물이 쪽쪽 빠지면서 내려가지, 지금 현재 사대부고로 해서는 절대 물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羅光洙委員 거리도 고대 주유소 쪽으로 보니까 빠질 데가 하나 없고요, 사대 부고,

○金鈴基委員 그 지역의 문제는 우리 성북구가 아니라 동대문구 쪽이라 난맥상이 있어요.

○柳興先委員 그래도 무슨 공사비를 들이면 앞으로 백년대계, 백년대계 우리 많은 공무원이 말씀들을 합디다마는 백년대계로 보더라도 그런 구비를 잘 잡아서 다시는 하수도 문제가지고 말썽이 안 날 정도로 해야지 주민들 불안,

○委員長 鄭昌萬 김순권위원님 얘기 좀 들어 봅시다.

○金順權委員 위원장님 그러시면 의견서를 하수관로 구경을 도로 양측 공히 1,200mm 이상으로 고대 앞 제기천입니까? 제기천 앞으로 시공토록 요망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의견을 채택하고 월요일날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그때 이 사항들을 한 번 다시 점검해 보고 오늘 의견서를 채택하면 좋겠습니까.

○委員長 鄭昌萬 아니 오늘 의견서를 채택을 해서 수정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여기서 좀 논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기천으로 한다든지 어디로 한다든지 그것을 선정을 해 주면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답사의견에 보면 두 번째 줄에 3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오수의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말 기점 선정에 적정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놔는데 이것을 아주 적어서 어느 지점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金順權委員 위원장님 그러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의견서를 채택을 했는데 방금 이연경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는 1,200mm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모양새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의견서를 채택하고 분명히 이것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李承魯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00mm공사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면 1,200mm 수치는 빼버려야 된다고. 안 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삽입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현재 지금 1,

100mm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1,200mm 정도는 안 되지.

○委員長 鄭昌萬 아니 이연경위원님 1,100mm가 확실합니까?

○李鍊垈委員 갖다 냈어요.

○委員長 鄭昌萬 제어 보셨어요?

○李鍊垈委員 거기 써 놔습니다.

○委員長 鄭昌萬 거기 써 놔습니까?

○李鍊垈委員 예, 1,100mm, 1,200mm짜리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물맥도 제기천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까지 결과보고가 없었잖아요.

○金甲濟委員 그런데 그것은 의견제시니까 상관없죠. 우리는 1,200mm를 의견제시할 수 있어요. 거기서 1,100mm를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1,200mm를 정정할 필요 없어. 우리 의견제시니까. 그래 우리가 의견제시했다고 해서 백프로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羅光洙委員 위원장님, 일단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1,100mm나 1,200mm나 큰 차이는 없어요.

경사도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10mm 차이에 큰 영향은 없으니까 방향을 어쨌든 제기천 쪽으로 뺄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툭 툭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委員長 鄭昌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서 하수관말 지정을 제기천 어느 지점으로,

○金甲濟委員 제기천으로 하면 되겠죠.

○委員長 鄭昌萬 제기천으로 하면 될까요? 제기천으로 선정을 하여 적정을 기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金甲濟委員 그것은 자구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뜻만 전하면 되니까.

○委員長 鄭昌萬 그런 수정으로 하고 하수관내 구경을 도로 양측 공히 1,200mm 이상으로 시공되도록 요망을 그냥 놔두시죠. 이연경위원님, 그냥 놔두시죠 이것은. 우리가 요망사항이니까.

○羅光洙委員 위치만 그렇게 변경시켜 주면 되겠어요.

○委員長 鄭昌萬 그러면 그렇게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수정이나 첨부할 내용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문제점과 개선 및 시정할 사항을 구 행정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구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鄭昌萬	文京周	金甲濟
徐榮振	金東殷	金順權
金鈴基	羅光洙	辛在福
柳興先	李鍊垞	李承魯

○缺席委員 1人

許東翼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林	洛	吉
---	---	---	---	---	---	---